

●●● 김진구 한국동물약품협회 회장

동물약품협회, 품목신고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



▲ 김진구 회장

1967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졸업
 1967 수도미생물연구소(현, 코미팜)
 1970 녹십자약품(현, 녹십자수의약품)
 1973~88 녹십자수의약품
 1989 (주)성일파마 설립
 1994 고려케미칼(현, 고려비엔피) 인수
 2007 한국동물약품협회 회장
 현 고려비엔피 회장

지난 2월 26일 정기총회를 통해 한국동물약품협회 회장으로 고려비엔피 김진구 회장이 선출됐다.

김진구 회장은 가축질병의 예방과 치료 및 악성 가축전염병의 근절 등이 동물약품 업체들의 주요 역할이라고 전제하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고품질의 동물약품 생산을 추구해 나갈 뜻을 밝혔다.

본고는 김 회장을 만나 국내 동물약품의 발전사와 축산업의 중요한 방역 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동물약품 산업의 대표기관인 한국동물약품협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들어보았다.

40여년 동물약품과 한 길

김진구 회장은 국내 축산업 태동기인 1960년대부터 40여년을 동물약품과 함께 걸어온 산 증인이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

하고 1967년 수도미생물연구소(현, 코미팜)에 입사할 당시만 하더라도 인체약품을 취급하던 범한약품에서만 뉴캐슬, 광견병, 탄저·기종저 백신 등 국내 4~5종의 동물약품이 제조되던 열악한 시대였다.

녹십자약품(현, 녹십자수의약품)으로 입사한 1970년부터 지방곳곳 중·소규모로 축산이 사업화 되면서 인체약품사인 유한양행과 동물약품을 전업으로 생산하는 동물약품업체들이 설립되었고, 1980년대부터 축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동물약품 산업 또한 급속도로 성장하는 시기를 거쳤다.

1989년 1월 (주)성일파마를 설립하면서 동물약품 경영일선에 본격적으로 투신한 김회장은 1994년 고려케미칼(현, 고려비엔피)을 인수하면서 동물약품의 제조·수입분야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했지만, 1997년 IMF로 동물약품업계 전체가 주춤하면서 김 회장 역시 고비를 겪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다소 성장세가 둔화되었지만 위생적인 축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이 우수한 동물약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동물약품사와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한국동물약품협회는 업계에 입문한지 만 40년이 된 김 회장이 협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동물약품업계의 제 2의 도약을 위하여 새로운 열의와 각오를 나타내고 있다.

‘동물약품협회 품목신고제도’ 정착

국내 동물약품산업은 동물약품 제조업체 80여개, 수입업체 30여개, 의약외품(애완견 샴푸 등)과 의료기기업을 포함하면 총 300여개 업체가 국내 시장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중 30여개 업체가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중 10여개 업체가 70%이상 장악하면서 메이저급

10개 업체가 국내 동물약품 시장을 선도해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물약품업계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와 한국약품공업협동조합 두 단체가 설립되어 있으며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체의 영역보 호사업과 사업 확장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고 한국동물약품협회의 한 분회로 소속되어 있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중소기업체 뿐만 아니라 수입업체를 총괄해서 모든 회원의 권익보호와 함께 신고 품목허가 등 정부의 위임업무 등을 위탁수행하고 있다.

지난 1월 15일 농림부로부터 ‘품목신고’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애완용 샴푸 등 의약외품과 비타민제 등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만으로 제품 출시가 가능한 제도로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농림부령 제1537호, 06. 08. 16),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농림부 고시 제2007-5호, 07.01.15) 등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현재까지 품목신고에 따라 번호가 부여된 제품은 총 161건('07.05.02 기준)으로 의약품이 29건, 의약외품이 104건, 대사성약은 25건, 소화기계작용약은 3건으로 부설 기술연구소의 기술지원과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여 선진적으로 제도 정착에 노력하고 있으며, 업체의 다양한 제품개발을 통한 수출 신장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 내 연구소 ‘PL(제조물책임)센터’ 설립

지난 2002년부터 홈페이지에 ‘유통신고센터’를 만들어 허가된 제품의 허위과장광고나 부정유통 사례를 신고를 받아 유통문란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이 본격적으로 정착함에 따라 제조물 생산에 불가피하게 따라올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물약품 PL센터' 개소를 계획하고 있다. '동물약품 PL센터'에서는 동물약품으로 인한 약화사고로 인하여 축수산농가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PL위원회를 개최하여 사고의 원인과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고 동물약품 자체적인 제품 결함으로 인하여 PL사고가 일어난 경우 PL보험 등을 통하여 양축가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상해 주도록 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OECD국가로서 '동물약품 처방제' 시급히 도입되길

예전, 마당에서 소, 돼지를 몇 마리 키우면서 자가 치료를 하던 때와 달리 현재는 사육규모가 대형화되고 밀집사육이 이루어지면서 질병이 다양해지고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악성 전염병들이 종종 발생하면서 자가치료와 방역개념을 넘어 전문가에 의한 질병관리와 방역의 필요성이 더욱더 요구되는 축산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내산 축산물의 위생조건 향상을 수입 축산물을 막아낼 수 있는 기본적 요건이며 위생조건의 향상을 위해서는 위생적인 사양환경 조성은 물론 동물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통하여 식품으로의 잔류나 질병치료를 불가능하게 하는 내성균 출현 문제를 좀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처해 가야한다.

김 회장은 앞으로 '동물약품 처방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통하여 항생·항균제의 효용성을 높이고 사용량을 줄이고 내성을 가능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OECD 국가에서는 처방제를 도입하여 모두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관리체제를 만들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입증이 필요하다고 전한다.

협회장으로 부임하면서

김진구 회장은 40여년간 동물약품과 함께하면서 1960~80년대까지 지속 성장하다가 1997년 IMF 이후 환율이 급상승 하면서 1998년 4~5월까지 환차손으로 감내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었는데 동물약품 업계에 입문한 이래 가장 힘들고 기억에 남는 시기였다고 말한다.

1982년 퍼메스린제재(지속성 살충제)를 녹십자수의약품에서 개발했는데 축사에 한번 살포하면 30일간 파리나 모기가 없어지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신제품으로서 동물약품 역사상 방송 광고를 실시한 제품이 있었고, 이 제품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한다.

양축농가가 믿고 신뢰 할 수 있는 동물약품을 생산하도록 중간역할을 하는 곳이 협회이라고 말한다. 우수한 품질의 동물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중개인 역할을 다 할 것이고, 협회에 신고한 후 생산·출시하고 있는 비타민·아미노산·미량광물 질제제들에 대해서도 유효성이 입증될 수 있는 제품들이 신고될 수 있도록 신고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부설 연구소 설립에 박차를 가하여 내년부터는 이들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에 중점을 둘 것이라 밝혔다.

또한 3~4년 전부터 동남아, 아프리카 등 수출에 주력하면서 동물약품협회에서는 수출전시 지원사업을 통하여 VIV박람회 등 한국관에서 16~20여개 동물약품사를 단체 전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동물약품을 세계 시장에 소개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세계와 발맞추어 성장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추진 할 것을 밝혔다. (정리 | 장성영 기자)